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 I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 실태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기관 이용 시기 역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조부모 의존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모의 취업여부와 소득계층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책 수립시 취업여부와 소득계층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두 기관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나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별활동의 경우도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아 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1.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향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2009 보육실태조사¹⁾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등 보육·교육기관과 조부모, 친인척 등 혈연과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을 보면 보육시설 41.3%, 유치원 19.4%, 선교원 0.6%, 반일제이상 학원 2.3%, 일반학원 6.6%로 조사되었다. 개인서비스는 동거조부모 9.1%, 비동거조부모 12.8%, 비혈연은 2.4%로 조사되었다.

* 본 집중조명 코너에 실린 3편의 원고는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 2009)를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90%의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257개 조사구 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하였음. 그 결과 총 4,901가구와 7,456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조사하였음. 이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2,554가구이며 영유아 수는 3,303명임. 총 5,000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동보육수요율을 40%이상정할 경우 허용오차 0.01318을 만족하는 규모임.

전반적으로 2004년 조사에 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제도권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비용보다 낮았음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과 수준 확대¹⁾로 인하여 제도권 기관으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동구분별로, 먼저 영아를 보면 기관서비스는 보육시설 33.5%이고, 비공식 보육이 27.7%로 기관이용률이 높다. 이는 기관 이용률보다 조부모

등 비공식부분 이용자가 많았던 2004년 조사에 비해서는 비공식부분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특히 0세아는 여전히 조부모 등 비공식 서비스 이용비율이 31.3%로 보육시설 이용률 8%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표 1 참조).

유아는 기관 이용률이 보육시설 49.9%, 유치원 39.4%, 선교원 1.0%, 반일제이상 학원 4.5% 일반학원 13.5%로 조사되었다. 혈연은 동거조부모 8.0% 비동거조부모 11.4%이고 비혈연은 1.8%이다.

〈 표 1 〉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모		
	영아	유아	전체	영아	유아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33.5	49.9	41.3	51.3	51.1	51.9
유치원	0.5	39.4	19.4	0.2	40.8	22.6
선교원	0.1	1.0	0.6	-	1.1	0.6
반일제이상학원	0.1	4.5	2.3	0.4	4.6	2.7
특기 및 보습 학원	0.2	13.5	6.6	0.4	15.4	8.6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0.8	0.4	1.0	0.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8.5	4.4	6.5	4.8	3.1	4.0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9.8	8.0	9.1	19.7	14.7	16.9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2.8	29.9	22.3	26.0
친인척	2.5	2.5	2.3	5.2	4.3	4.6
비혈연	2.4	1.8	2.4	6.6	3.9	5.4
(수)	(1,744)	(1,559)	(3,179)	(468)	(441)	(1,1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0세아의 경우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1)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4년 400억원 수준에서 2010년 2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2.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가. 이용 경향

아동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총 수는 2,050명이다.

다음 [그림 1]은 2009 보육실태조사에서 아동 연령 기준을 그 해 1월 1일자로 환산하여 연령별 4개 기관 이용률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4개 기관 전체 이용률은 0세 7.0%, 만 1세 31.1%, 만 2세 64.2%, 만 3세 90.1%, 만 4세 97.1%이며 만 5세 98.9%이다. 즉, 학령 직전의 아동은 98.9%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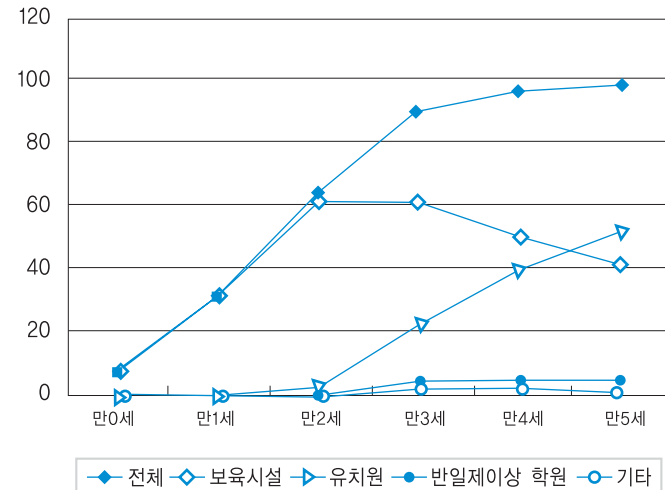
전체적인 연령별 기관 이용경향을 보면 보육시설은 만 3세를 기점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며,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점차 증가한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은 만 3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약 5% 정도를 유지하며 기타 기관(선교원 등)은 2%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0세에서 만 2세인 영아는 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취학 연령으로 갈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만 4세 유치원 이용률이 보육시설 이용률을 넘어서고 있다.

나. 보육·교육기관별 이용아동 특성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참여자 비율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이 1,342명으로 65.5%, 유치원 이용이 612명 29.9%,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이 75명 3.7%이다.

4개 기관 이용 아동 특성을 비교하면 보육시설은 취업모, 저소득, 읍·면지역 아동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유치원은 중소도시, 미취업모, 중위소득 아동이, 반일제이상 학원은 대도시, 미취업모, 고소득 아동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아 41.1%, 유아 58.9%이고, 연령별로 0세 3.4%, 만 1세 13.3%, 만 2세 24.5%, 만 3세 23.6%, 만 4세 19.1%, 만 5세 15.9%로 만 2세와 만 3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거주아동이 44.9%로 가장 많고 대도시 36.6%, 읍·면



[그림 1] 기관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표 2> 보육·교육기관 이용아동 특성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X ² (df)
단위: % (명)						
아동구분						
영아	41.1	1.3	2.6	5.0	27.5	364.2(3)**
유아	58.9	98.7	97.4	95.0	72.5	

연령별						
0세	3.4	-	-	-	2.2	
1세	13.3	-	1.3	-	8.7	
2세	24.5	1.3	1.3	4.8	16.5	
3세	23.6	19.3	30.7	33.3	22.7	n/a
4세	19.1	33.8	34.7	38.1	24.2	
5세	15.9	44.9	32.0	23.8	25.2	
6세	0.2	0.7	-	-	0.4	

지역						
대도시	36.6	39.3	54.7	45.0	38.2	16.2(6)*
중소도시	44.9	43.1	40.0	50.0	44.2	
읍·면	18.5	17.6	5.3	5.0	17.6	

모 취업						
취업	42.9	39.7	38.7	40.0	41.8	n/a
미취업	53.4	57.4	61.3	60.0	54.9	
모부재	3.7	2.9	-	-	3.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3	4.6	1.3	4.5	5.6	n/a
100~149만원	12.6	6.1	1.3	-	10.1	
150~199만원	18.7	10.3	6.7	18.3	15.9	
200~249만원	14.8	14.7	8.0	18.2	14.5	
250~299만원	11.9	13.1	5.3	31.8	12.2	
300~349만원	11.5	15.7	13.3	9.1	12.8	
350~399만원	5.8	5.7	10.7	4.5	5.9	
400~499만원	8.3	11.6	14.7	4.5	9.5	
500~599만원	5.2	7.9	24.0	-	6.6	
600만원 이상	4.9	10.3	14.7	9.1	6.9	
계(수)	100.0(1,342)	100.0(612)	100.0(75)	100.0(20)	100.0(2,050)	
총수(2,050)대비 %	65.5	29.9	3.7	0.1		

주: * p<0.05, ** p<0.01,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지역 18.5%이다. 미취업모가 53.4%로 취업모 42.9%보다 많고 모부재가 3.7%이다. 가구 소득 별로는 100~199만원 계층 31.3%, 200~300만

원 26.7%이며 99만원 이하 6.3%, 600만원 이상 4.9%이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아 1.3%, 유아

98.7%이고, 연령별로 만 2세 1.3%, 만 3세 19.3%, 만 4세 33.8%, 만 5세 44.9%로 만 4세와 만 5세가 대부분이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거주아동이 43.1%로 가장 많고 대도시 39.3%, 읍·면지역 17.6%이다. 미취업모가 57.4%로 취업모 39.7%보다 많고 모부재가 2.9%이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299만원 27.8%, 400~599만원 19.5%이며 600만원 이상 10.3%, 99만원 이하 4.6%로 보육시설 취원아동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유아 97.4%이며 대도시에 54.7% 거주하며, 미취업모가 61.3%이다. 가구소득은 이용자의 53.4%가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의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이다. 두 기관 모두 미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다. 취업모 비율은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이다. 다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1세 아동의 경우, 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에서 미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다.

〈표 3〉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 모 취업 비율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취업	미취업	부재	계(수)	취업	미취업	부재	계(수)
전체	42.9	53.3	3.8	100.0(1,325)	39.7	57.6	2.7	100.0(620)
0세	44.4	55.6	-	100.0(45)	-	-	-	-
1세	49.4	46.7	3.9	100.0(178)	-	-	-	-
2세	45.4	53.1	1.5	100.0(328)	11.1	88.9	-	100.0(9)
3세	42.0	54.2	3.8	100.0(312)	34.7	65.3	-	100.0(121)
4세	39.2	54.9	5.9	100.0(255)	40.9	56.7	2.4	100.0(208)
5세	39.1	55.6	5.3	100.0(207)	42.6	53.5	3.9	100.0(282)

단위: % (명)

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현재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 27.5%,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목적이 32.1%로, 59.6%가 아동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대리보호는 21.0%이다. 이외 초등학교 준비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6.9%, 예체능교육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이유는 기관별로는 차이를 보여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보육시설 29.0%이고 유치원은 5.2%이며 학원이 8.0% 순으로 기관유형 중 유치원이 대리보호 기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에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을 지적인 비율이 38.3%로 높고 초등학교 준비라는 비율이 21.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이 6.7%이지만, 예체능 특기교육의 비율이 22.7%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아서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등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예체능 특기교육임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이유

구분	단위: %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전인적 발달	28.5	38.3	42.7	40.0	32.1
초등학교 준비	4.5	21.4	6.7	15.0	9.7
예체능 특기교육	0.9	2.8	22.7	5.0	2.3
부모 대리보호	29.0	5.2	8.0	15.0	21.0
사회성 발달	29.0	26.0	17.3	10.0	27.5
같이 놀 아이 없음	7.7	5.9	1.3	10.0	6.9
기타	0.4	0.4	1.3	5.0	0.5
계(수)	100.0(1,343)	100.0(611)	100.0(75)	100.0(20)	100.0(2,049)
$\chi^2(df)$	430.4(18)**				

** p<.01

라. 현 이용기관 최초 이용 시기

처음 보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37.6개월에 현 기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아이가 몇 개월 때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별로 보육시

〈표 5〉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 시기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7	14.0 (1,342)	51.2	11.1 (612)	48.3	11.2 (75)	44.6	8.0 (20)	37.6	16.1 (2,050)
지역										
대도시	30.8	13.9 (492)	50.3	10.1 (241)	47.3	11.7 (41)	46.6	9.8 (9)	37.8	15.7 (782)
중소도시	30.6	14.1 (602)	52.2	11.3 (264)	49.3	10.6 (30)	43.9	6.0 (10)	37.7	16.5 (906)
읍·면	30.8	13.9 (249)	50.7	12.5 (108)	50.2	12.0 (4)	36.5	5.1 (1)	36.9	16.3 (362)
F		0.0		2.1		0.3		1.0		0.4
연령										
영아	20.7	9.4 (552)	34.6	3.0 (8)	28.9	8.6 (2)	33.0	- (1)	21.0	9.5 (563)
유아	37.7	12.3 (790)	51.4	11.0 (603)	48.7	10.9 (74)	45.1	7.8 (19)	43.9	13.5 (1,487)
t		-27.2**		-0.44**		-2.3*		-		-
모취업										
취업모	27.8	14.0 (576)	52.1	10.9 (243)	47.0	10.8 (29)	44.2	8.7 (8)	35.5	17.1 (857)
미취업모	32.7	13.5 (716)	50.0	11.0 (351)	49.0	11.5 (46)	44.9	7.8 (12)	38.9	15.1 (1,125)
모부재	35.2	14.0 (50)	62.0	8.7 (18)	-	- (75)	-	- -	42.2	17.4 (68)
F		23.6**		11.7**		0.6		0.0		14.0**

* p<.05 ** p<.01

설은 30.7개월, 유치원은 51.2개월, 반일제이상 학원은 48.3개월이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가장 어린 시기부터 이용하는 기관이며 다음이 학원 그리고 유치원으로 볼 수 있다.

마.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형제자매와 동시 취원, 아이의 적응, 운영시간, 교사, 특기교육, 차량이용, 시설환경, 주변 평판, 종교적인 이유 등 12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6 참조).

그 결과, 집과의 거리 26.7%, 프로그램 내용 16.1%, 주변 평판 15.7%, 비용 10.6%의 순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하였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역시 집과의 거리 21.9%, 프로그램 19.6%, 비용 9.9%, 주변의 평판 8.9%의 순이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도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집과의 거리와 주변 평판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은 다소 감소되었다.

선택 이유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집과의 거리 30.2%, 주변 평판 15.6%, 프로그램 내용 11.0%, 교사 9.2%, 비용 8.3% 순이다. 유치원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이 22.7%로 집과의 거리 21.7%보다 근소한 비율로 높으며, 주변의 평판 17.6%, 비용 14.1%이다.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는

프로그램 52.0%로 가장 높고 비용 14.7%, 집과의 거리 10.7%이다. 이처럼 보육·교육기관 유형별로 기관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거리, 비용,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평가 등 4가지 요인이 주된 선택 이유인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육 시설은 근거리 여부, 유치원은 거리와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이나를 따져보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은 기관 선택 이유는 이용하는 목적이나 기관이 수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밖에 시설 환경 5.7%, 형제자매를 함께 보낼 수 있는지 4.6%이

기관 선택이유이며, 이미 아이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적응이 된 경우가 4.2%로, 일부 부모는 다니던 보육·교육기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

바. 기관이용시간 개요

영유아가 보육시설 등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이용시간으로 기준하여 산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²⁾ 본 이용시간은 가고 오는 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까지 포함한다.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0.2%, 21.2%이고 9시간 이상은

18.1%이며,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21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6분이다. 이는 2004년도 보육실태 조사의 결과인 평균은 6시간 42분에 비하여 40분 정도가 길어진 것이다. 이는 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증가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기관별로 보면 이용시간은 보육시설이 가장 길고 기타 기관이 가장 짧다. 보육시설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7.3%, 15.3%이고 9시간 이상은 22.9%이며 11시간 이상도 4.0%이다. 평균은 7시간 45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9분이다. 유치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5.2%, 31.1%이고 9시간 이상은 9.8%이며, 평균은 6시간 37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33분이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

< 표 6 >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구분	단위: %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비용	8.3	14.1	14.7	33.3	10.6
집과의 거리	30.2	21.7	10.7	4.8	26.7
프로그램 내용	11.0	22.7	52.0	19.0	16.1
형제자매와 함께	5.3	3.4	4.0	-	4.6
아이 적응	4.9	2.9	1.3	-	4.2
운영 시간	4.6	1.6	1.3	-	3.6
교사가 좋아서	9.2	5.6	5.3	19.0	8.1
특기교육	0.4	1.1	5.3	-	0.8
차량이용	0.8	0.7	-	-	0.7
시설환경	5.7	6.4	-	-	5.7
주변 평판이 좋아서	15.6	17.6	2.7	4.8	15.7
종교적 이유로	1.6	0.8	-	19.1	1.5
기타	2.4	1.4	2.7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42)	(612)	(75)	(21)	(2,047)

주: 빈도수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 표 7 >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평일 이용시간

보육시간	단위: %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5시간까지	7.3	15.2	18.7	15.0	10.2
5~6시간까지	15.3	31.1	40.0	45.0	21.2
6~7시간까지	17.6	25.1	20.0	30.0	20.0
7~8시간까지	18.9	11.3	10.7	5.0	16.2
8~9시간까지	18.0	7.5	5.3	-	14.3
9~10시간까지	12.7	8.3	2.7	5.0	10.9
10~11시간까지	6.2	1.3	1.3	-	4.5
11시간 이상	4.0	0.2	1.3	-	2.7
계(수)	100.0(1,343)	100.0(611)	100.0(75)	100.0(20)	100.0(2,049)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6시간 37분	6시간 16분	6시간 7분	7시간 21분
표준편차	1시간 59분	1시간 33분	1시간 25분	1시간 5분	1시간 56분
F			65.8**		
2004년 조사	7시간 20분	5시간 51분	6시간 20분	6시간 14분	6시간 42분

주 **: 통계적 유의도 p (0.05)을 의미함.

2) 가정 사정 및 이동 거리에 따라라도 등원 및 하원 시각이 달라지고, 이동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비해서는 길 것이지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각 18.7%, 40.0%이고 9시간 이상은 5.3%이며, 평균은 6시간 16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25분이다.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5.0%, 45.0%이고 9시간 이상은 5.0%이며, 평균은 6시간 7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분이다.

1) 지역별, 영유아별, 모취업여부별 보육 시설 이용시간

〈표 8〉은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지역, 아동연령 및 모 취업상태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다. 아동구분별로도 평균시간으로는 영아가 7시간 42분, 유아 7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 영아가 오히려 조금 짧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이용시간 분포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영아

24.9%, 유아 20.8%로 영아가 4.1% 포인트가 높다. 또한 9시간이 넘는 비율도 영아는 25.2%, 유아 21.3%로 영아가 다소 높고 10시간 이상은 영아가 5.4%포인트가 높게 차이가 난다. 즉, 영아는 단시간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로 구분되는 비율이 모두 유아보다 더 높다고 하겠다. 표준편차가 영아는 2시간이 넘는다. 영아의 이러한 이용시간 양상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 이용시간 조사결과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본보조금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 아동 8시간 38분, 모부재 아동 9시간 16분이고 미취업모 아동은 6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취업모 11.6%, 미취업모 32.5%이고 9시간 이상은 취업모 39.7%, 미취업모 7.2%이고 모부재 아동은 50.0%이다.

〈 표 8 〉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구분	단위: % (단위: % (단위: %))							
	지역			아동		모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	모부재
5시간까지	8.0	7.1	6.1	12.1	3.9	3.6	10.5	5.9
5~6시간까지	15.1	16.8	12.1	12.8	16.9	8.0	22.0	3.9
6~7시간까지	16.9	17.4	19.4	16.8	18.2	9.9	24.3	9.8
7~8시간까지	16.9	18.3	24.7	16.6	20.6	17.0	21.1	9.8
8~9시간까지	18.2	18.5	16.6	16.5	19.1	21.8	14.9	19.6
9~10시간까지	15.3	10.1	13.8	11.8	13.3	21.7	4.7	21.6
10~11시간까지	6.1	6.8	4.9	8.9	4.3	10.2	1.7	23.5
11시간 이상	3.5	5.0	2.4	4.5	3.7	7.8	0.8	5.9
계(수)	100.0(490)	100.0(602)	100.0(247)	100.0(653)	100.0(791)	100.0(677)	100.0(717)	100.0(61)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7시간 46분	7시간 44분	7시간 42분	7시간 48분	8시간 38분	6시간 57분	9시간 16분
표준편차	1시간 55분	2시간 8분	1시간 45분	2시간 8분	1시간 53분	1시간 55분	1시간 31분	3시간 15분
F/t		0.1		-0.9			159.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을 의미함.

2)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이용하는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차이를 보면 평균시간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이 10시간 22분으로 다른 시설과 차이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로 7시간 57분이며 다음이 국·공립시설로 7시간 51분이고, 법인 및 단체보육시설이 7시간 28~29분으로 비교적 짧다.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큰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표준편차가 2시간 21분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시간 30분으로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표준편차는 분포를 반영한다. 이용시간 분포를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6시간까지가 27.8%이고 9시간이 넘는 아동이 31.7%이며, 직장보육시설은 80.8%가 이용시간이 9시간을 넘는다. 이외 유형의 시설은 6~9시간에 아동비율이 분산 분포한다. 가정보육시설의 이용시간 양극화

현상은 앞에서 제시한 영아의 이용시간의 양극화 현상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9 참조).

3) 모취업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시간

〈표 10〉은 아동 각 연령별, 모 취업여부별로 이용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취업모의 0세아는 이용시간이 9시간 49분이고, 1세아는 9시간이고 그 이후 연령은 모두 8시간대에 분포하여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미취업모의 아동은 대체로 6시간 40분에서 7시간 15분 사이에 분포하여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0세아의 표준편차가 거의 3시간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아 중에서 이용시간이 3시간 정도의 단시간 이용자가 일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모부재 아동의

〈 표 9 〉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구분	단위: % (단위: % (단위: %))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기타법인단체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부모협동	전체
~5시간	2.8	3.4	7.5	7.6	18.3	-	-	7.3
5~6시간	12.5	18.8	13.2	17.0	9.5	3.8	25.0	15.3
6~7시간	20.4	17.9	26.4	17.9	10.3	7.7	-	17.6
7~8시간	26.9	29.2	18.9	16.7	11.9	3.9	50.0	18.9
8~9시간	19.4	20.5	20.8	17.5	18.3	3.8	25.0	18.0
9~10시간	12.0	5.1	7.5	14.1	7.1	38.5	-	12.5
10~11시간	3.2	5.1	1.9	5.5	15.9	19.2	-	6.2
11시간~	2.8	-	3.8	3.7	8.7	23.1	-	4.1
계(수)	100.0(216)	100.0(117)	100.0(63)	100.0(801)	100.0(126)	100.0(26)	100.0(4)	100.0(1,343)
평균 이용시간	7시간 51분	7시간 29분	7시간 28분	7시간 40분	7시간 57분	10시간 22분	7시간 30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2시간 7분	1시간 26분	1시간 44분	1시간 53분	2시간 30분	2시간 21분	58분	1시간 59분
F					8.7**			

** p<0.01

〈 표 10 〉 영유아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상)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9시간 49분	9시간	8시간 19분	8시간 39분	8시간 35분	8시간 33분
표준편차	1시간 45분	2시간 7분	2시간 1분	2시간 4분	1시간 41분	1시간 25분
(수)	(20)	(88)	(149)	(133)	(101)	(84)
미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6시간 41분	6시간 39분	6시간 51분	6시간 55분	7시간 2분	7시간 15분
표준편차	2시간 59분	1시간 45분	1시간 28분	1시간 28분	1시간 17분	1시간 15분
(수)	(25)	(83)	(175)	(171)	(140)	(122)
모부재 아동						
평균이용시간	-	7시간 20분	9시간 30분	9시간 5분	10시간 24분	9시간 1분
표준편차	-	3시간 1분	39분	1시간 40분	5시간 9분	1시간 38분
(수)	-	(7)	(5)	(12)	(15)	(11)
전체						
평균이용시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34분	7시간 44분	7시간 50분	7시간 51분
표준편차	2시간 57분	2시간 18분	1시간 53분	1시간 57분	2시간 6분	1시간 30분
(수)	(45)	(178)	(329)	(317)	(256)	(217)
F/t	17.3**	29.6**	31.4**	40.6**	35.1**	27.5**

** p<.01

이용시간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어 상당수의 아동이 9시간 넘는 장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취약보육³⁾ 이용 실태 및 요구

현재 하루 12시간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시간연장형 보육과 일정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필요성, 현재 및 과거 이용, 앞으로의 이용의사를 제 특성

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9.0%이고, 야간보육이 4.9%이며,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이용경험은 1% 내외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과 보육시설 이용경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용한다는 경우에도 상시

3)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종전에 특수보육으로 불리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취약보육으로 명명하였음.

〈 표 11 〉 취약보육 이용

단위: %^(상)

구분	현재			보육시설 이용 경험		계(수)
	상시	가끔	미이용	있음	없음	
시간제보육	1.1	7.3	91.6	9.0	91.0	100,0(3,304)
야간보육	0.9	3.8	95.3	4.9	95.1	
24시간제보육	0.1	0.6	99.3	0.7	99.3	
휴일보육	0.1	1.2	98.7	1.3	98.7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제 보육 1.1%, 야간보육 0.9%이고, 그 이외는 미미하다(표 11 참조).

나. 취약보육의 필요성

〈표 12〉는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의 절반이 넘는 52.8%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외 야간보육 필요성 34.9%, 24시간 보육 필요성 11.4%, 휴일보육 필요성 23.4%로 조사되어, 취약보육 중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필요 정도는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간제 보육 12.5%, 야간보육 7.1%, 24시간보육 1.5%이다. 최다 빈도는 시간제의 경우 1주일에 1~2번, 야간보육은 한 달에 1~2번, 24시간제보육

〈 표 12 〉 취약보육 필요성

단위: %^(상)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2004년조사 '없음' 비율
시간제보육	12.5	23.6	14.6	2.1	47.2	100,0(3,302)	36.6
야간보육	7.1	9.3	14.4	4.1	65.1	100,0(3,303)	58.7
24시간제보육	1.5	1.1	3.2	5.6	88.6	100,0(3,303)	79.4
휴일보육	-	5.0	11.6	6.8	76.6	100,0(3,303)	75.3

육은 1년에 1~2번이다.

본 조사결과를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04년도에는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시간제 보육 63.4%, 야간보육 41.3%, 24시간 보육 20.6%, 휴일보육 24.7%로, 휴일보육은 본 조사와 2004년도 조사결과가 유사하지만 그 이외는 모두 2009년 본 조사가 낮았다.

4. 교육·보육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실태

다음 〈표 13〉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41.5%인 반면, 과반수가 넘는 58.5%의 영유

〈 표 13 〉 교육·보육기관이 제공하는 특별활동 참여 수

구분	단위 %											계	(수)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1개		
전체	41.5	16.7	16.6	12.8	6.4	2.8	1.1	0.9	0.7	0.5	-	100.0	(2,048)
연령구분													
영아	56.8	13.7	12.1	10.2	5.1	1.1	0.4	0.2	0.2	-	0.2	100.0	(562)
유아	35.7	17.8	18.2	13.8	7.0	3.5	1.3	1.1	0.9	0.7	-	100.0	(1,486)
지역													
대도시	38.2	16.9	17.9	13.9	6.8	3.8	0.9	0.6	0.8	0.1	0.1	100.0	(783)
중소도시	42.9	16.2	16.8	12.3	6.2	2.5	1.3	0.9	0.6	0.3	-	100.0	(906)
읍·면	44.6	17.5	13.3	11.4	6.6	1.7	0.8	1.4	0.8	1.9	-	100.0	(361)
시설유형													
보육시설	39.4	15.3	16.8	14.4	7.7	3.4	1.0	0.9	0.7	0.3	0.1	100.0	(1,341)
유치원	44.4	20.3	16.9	9.8	3.6	1.5	1.3	0.3	0.8	1.1	-	100.0	(611)
반일제이상학원	45.3	13.3	12.0	8.0	9.4	4.0	1.3	5.4	1.3	-	-	100.0	(75)
기타	75.0	10.0	10.0	5.0	-	-	-	-	-	-	-	100.0	(20)

주: 빈도수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아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활동 과목수를 보면, 1개는 16.7%, 2개 16.6%, 3개 12.8%, 4개 6.4%의 순이다.

아동이 이용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종류는 연령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55.4% 중소도시 57.1%, 대도시 61.8%의 아동이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다.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

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관이용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조부모 의존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아동의 기관 이용 시기 역시 빨라졌다. 조사된 유아 중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은 97.8%로 2004년 88.4%에 비해 9.4%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2%만을 제외하고 모두 반일

제이상 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다. 영아는 2004년 15.7%에서 2009년 33.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이 평균 30.0개월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여 2004년 실태조사 결과 41.39 개월과 비교할 때, 1년 가까이 단축되었다. 이는 연령별로 만 2세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과 더 같은 맥락이다.

셋째, 아동 모의 취업여부와 소득계층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책 수립 시 취업여부와 소득계층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부모 대리보호가 51.9%인 반면 미취업모는 71.8%가 아동 발달이다. 기관 이용 시간에서도 하루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취업모는 39.7%인 반면 미취업모는 7.2%이며 1일 이용 시간도 취업모 아동이 평균 1시간 41분 길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0세아는 조부모나 비혈연인이 아이를 돌본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역할 차이 또한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할 때 요인이나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별활동의 경우도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용하는 아동 수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아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다.

정리: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